



장지·강일 버스 차고지에 청년 신혼부부 주거타운 건설

서울 송파구 장지 버스 공영차고지와 강동구 강일 버스 공영차고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이들 차고지에 총 1천800호(장지 840호, 강일 965호)의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건설하고 부지의 50%는 공원녹지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야외 차고지는 지하화하거나 실내 차고지 형태로 변경해 주거환경 저해요인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시키기로 했다.

이번 버스 차고지 복합개발은 서울시의 콤팩트시티 시리즈의 3번째 사업이다. 서울시는 앞서 도로 위, 교통섬, 빗물펌프장 부지를 활용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콤팩트시티 모델을 선보였다.

해외에서는 버스 차고지 입체화 시도가 활발하다. 미국 뉴욕의 마더

클라라 헤일 버스 차고지는 실내에 세워 소음, 매연 등 주거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있다.

버스 차고지 활용 콤팩트시티 모델은 ▲ 기존 차고지 현대화 ▲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건립 ▲ 도시 숲(공원) 조성 ▲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 지역 생활 중심기능 강화로 추진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버스 차고지를 입체화한 이번 모델이 새로운 시도인 만큼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달 중 장지 차고지에 대한 공모를 시작하고, 2020년 3월 강일 차고지 공모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내년 7월까지 설계안을 채택하고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에는 기존 차고지와 인접한 곳에 임시차고지를 운영하고 2024년 입주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밖에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어 공공주택 1천호와 생활 SOC를 확충하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진행 중으로 연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버스 차고지 상부의 새로운 콤팩트시티가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활용도가 낮은 기존 차고지를 재생,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SOC를 설치해 공간복지를 실현하는 콤팩트시티 조성 사업"이라며 "장지동·강일동 차고지 부지 일대가 젊음이 넘치는 활기찬 도시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❶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이 커졌다 커졌다

서울시 공공주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년의 당연한 자립과
신혼부부의 꿈을 실현하도록
청신호로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청춘 주택사업!

스마트시티 서울
스마트라이프 청신호

청년과
신혼부부의
호~움
청신호



청신호

SMART HOUSING

신혼집은
서울시家

신규 신혼부부 청약인
원 25,000호 지원

▶ 꿈 마련 걱정 없도록
공급확대

· 주택공급 원 14,500호
· 신혼부부 청약인원 7,421명 확보
· 미래에 청년주택

▶ 돈 걱정 없도록
금융지원

· 신혼부부 청약보증금 원 10,500호
· 부양할상소득 1억 원 이하까지
· 0%이자 대출 원3,000만 원

▶ 아이 키움 걱정 없도록
다자녀 지원

· 주거비할인이 더 큰 임대주택으로
· 보증금, 월임대료 지원

▶ 찾아다님 필요 없도록
정보강화

· 신혼집 찾기 행사물 서울주택도시공사
· 6개 지역구 주거복지센터에 신혼부부
· 주거지원 코디네이터